

美 구축함-상선 충돌... 10명 실종·5명 부상

7함대 9천t급 존 S. 매케인함 독자적 작전 가능 주요 전투함 소속 함정 사고 올 들어 4번째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존 S. 매케인함(DDG-56)이 싱가포르 동쪽 말라카 해협에서 상선과 충돌하면서 다수의 실종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 해군 7함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날 7함대 소속 존 S. 매케인함이 싱가포르 동쪽 해상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10명의 수병이 실종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헬기편으로 싱가포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생명이 지장 없다고 함대측은 설명했다. 미 해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1994년 취역한 존 S. 매케인함에는 23명의 장교와 24명의 하사관, 291명의 수병이 탑승한다.

미 구축함-상선 선박과 충돌

존 S. 매케인함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길이 154m •규모 9천t급



인명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 7함대 측은 구축함의 좌현 선미 부분이 파손됐지만 자체 동력으로 싱가포르 항구를 향해 이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1만 2000t의 석유를 운송하다가 존 S. 매케인함과 충돌한 유조선에서는 사상자가 없었으며, 선체가 일부 파손됐지만 기름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싱가포르 당국이 밝혔다.

존 S. 매케인함은 이날 오전 5시 24분(현지시간) 싱가포르 항구로 향하던 중 라이베리아 선적의 유조선 알니 MC(Alnic MC, 총톤수 3만t)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싱가포르 해군과 해안경비대 미 해군이 예인선과 헬기, 해안 경비정 등을 투입해 공중으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7함대는 밝혔다. 또 말레이시아 해군도 구조작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7함대 관계자는 사고 구축함을 대체할 다른 함정이 투입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미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춰 대양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이지스함의 대명사로 통한다. 함정 크기로 볼 때 순양함보다 작지만 전투선상 호송, 해상 화력 지원 등을 수행하며 대잠·대함·대공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코스카 항을 모항으로 사용하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함정인 사고를 낸 것은 올해 들어 벌써 4번째다.

지난 1월에는 제7함대 소속 미사일 순양함 앤티탑이 일본 도쿄만에서 좌초해 선체가 파손됐고, 5월에는 순양함인 레이크 채플레인(CG 57)이 한반도 작전 중 소행어선과 충돌했다. 또 지난 6월 17일 새벽에는 이지스 구축함 '피츠제럴드'가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필리핀 선적의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조사에서 승조원 실수와 지휘관의 부적절한 통솔력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강직한 신하 소우

소우(蕭瑀, 575-648)는 남북조시대 양 왕조의 황족 출신으로 마지막 황제 소종의 아우다. 자는 시문으로 수양제 정비 소황후가 누나가 된다. 당 왕조에 기여한 공으로 능연각 24인의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당고조 이연이 617년 장안에 들어오자 귀순해 송국공에 임명되었고 크게 신임을 받았다. 황족 출신답게 학문이 깊었고 예의에 뛰어났다. 현무문의 정변으로 이세민이 즉위하자 태자 소사가 되었다. 정관 원년(627년) 황제는 군신들과 주(周)와 진(秦)왕조의 흥망 문제를 논의했다. 그가 "은나라의 주왕이 부도했기 때문에 주의 무왕이 그를 정벌했습니다. 주와 전국시대 6국은 죄가 없었는데 진시황제가 그

발굴 등의 과업을 수행했다. "간곳마다 집이 친히 본 것처럼 하라"는 황제의 뜻을 잘 받들었다.

635년 태종은 그를 정2품인 특진(特進)으로 임명하고 '진실로 사직의 신하'라 칭찬했다. 시를 내려 "가센 바람은 군선 풀을 알고, 혼탁한 세상은 충성스런 신하를 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그가 속이 좁고 포용력이 부족한 점을 우려해 "경의 총직함은 옛사람을 낚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악이 너무 분명해 때로 잘못할 때가 있다"며 경계하였다. 위정이 이를 보고 "소우가 혼자 외톨이였는데 오직 폐하께서 그의 충성과 군심을 아십니다. 만일 밝은 지혜가 있는 군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고 답하였다.

643년 황태자 이시건을 폐하고 진

중국-인도 국경문제 대처 중 잇단 대규모 군사훈련

중국군과 인도군이 인도 북동부 시킴 인 근 도카라(부탄령 도클라-중국령 동라)에서 국경 문제로 두 달 넘게 대치하며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산악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인도를 겨냥한 무력시위로 해석됐다.

21일 중국 중앙(CCTV) 등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서부군구는 18일 77집단군 소속 기갑부대 등 10여개 부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CCTV 공개 훈련 영상에는 티베트 산악 지역에서 중국군 전차가 언덕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모습과 무장한 헬리콥터에서 지상에 있는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지난 6월 중국-인도-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 지역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로 인해 중국과 인도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중국은 산악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달아 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7월 티베트 산악지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데 이어 근래 간수성과 칭하이성 사이에 있는 치렌산 일대에서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벌였다.

인도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서부군구 소속 76집단군이 한 당시 훈련에는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대전차 로켓포, 철갑탄, 살상폭파용 유탄 등 각종 중화기와 중무장 보병을 동원했으며 국경 지역에 구축된 진지와 참호를 공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중화기를 이용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으로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겨냥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홍콩 중심가에서 우산을 든 시민 수만명이 조슈아 왕 등 2014년 '우산혁명' 당시 지도부에 대한 징역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홍콩 거리 물들인 '2017 우산혁명'

조슈아 왕 징역형 항의의 수만 명 시위

조슈아 왕 등 2014년 '우산혁명' 지도부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홍콩에서 벌어졌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민인권전선, 사회민주연선, 데모시스토당 등 범민주파가 주최하고 시민 수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전날 오후 홍콩 시내에서 벌어졌다.

시위대는 홍콩 시내 완차이 지역에서 센

트럴 지역까지 행진한 후 홍콩 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 참여 인원이 79일간 벌인 도심 점거 시위인 우산혁명 후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다. 구제적인 인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2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시위대는 우산혁명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들거나, 조슈아 왕 등의 투옥에 항의해



조슈아 왕

가짜 죄수복을 입고 참석하기도 했다. 우산혁명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 우산으로 맞서며 도로를 점거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콩 고등법원은 17일 불법집회 참가죄 등을 적용해 조슈아 왕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네이션 로 주석, 알렉스 차우 홍콩전상학생연회 전 비서장에 대해 각각 6개월, 8개월,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당 왕조 기여 '능연각 24인' 중 한명

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천하를 얻은 것은 비록 같으나 민심을 잃은 것은 다릅니다."고 주장했다. 태종은 "공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주나라는 천하를 얻고서 인의를 닦는데 노력했는데, 진나라는 천하를 얻은 연후 거짓과 힘을 숭상했다. 이것이 왕조의 수명이 다른 이유다."고 말했다.


정관 4년(630년) 태종은 방현령과 소우에게 "수 문제는 어떤 군주인가"를 물었다. 그가 답하기를 "수 문제는 부지런히 정치를 했고 어떤 경우에는 해가 저물 때까지 일했습니다. 비록 성품은 인후하지 않았으나 열심히 노력한 군주였습니다." 태종은 이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공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문제는 일을 모두 스스로 결정했고 군신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군신들은 군주의 생각을 알고 나서 오직 결정된 것을 수행했고, 완성된 것을 받았다. 비록 허물과 과오가 있었어도 간쟁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수나라가 2대에서 망한 까닭이다." 태종은 수나라의 멸망을 끝임없이 의식했다. 소우는 태종에게 끊임없이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는 뛰어난 관료였다.

634년 태종은 중신들이 천하를 나누어 순행토록 하였다. 태상경 소우 역시 12인의 중신과 같이 순행에 참여해 지방 관리들의 복무자세, 민간인의 징역형에 대해 고통, 초야에 묻혀 있는 인재

왕 이치를 새로운 후계자로 세웠다. 태종은 소우를 태자태보로 삼고 이세적을 태자첨사로 삼았다. 둘이 함께 동중서문하삼품으로 임명되었다. 진왕의 측근으로 삼아 왕조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만큼 그의 충성심을 높이 산 것이다.

645년 태종은 요동 친정을 단행했는데 소우를 낙양 유수로 임명했다. 646년 방현령이 당파를 만들어 모반을 꾀했다고 다음과 같이 무고했다. "방현령 일파는 무리를 짓고 충성하지 아니하며 권력을 잡고 굳게 뭉쳤으나 폐하께서 자세히 모르고 계십니다." 태종은 "경의 말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군주가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수족과 심복으로 삼았다면, 마땅히 성심으로 그에게 맡겨야 한다. 짐이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어찌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 못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고 말했다. 결국 상주자사로 전출되고 봉책이 박탈되는 처벌을 받았다.

648년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태종은 "시호라는 것은 행적이어서 마땅히 그 사실에 맞아야 하니 정판공(貞範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정은 곧은 말을 하며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며, 인색해 덕을 베풀지 않는 것을 편이라고 한다. 소우를 보는 황제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현 (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군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층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